

지방어항, 친환경 관광어항으로 새단장

여수 호령항 등 31개 어항에 올 135억 투입

퇴적물 제거·방파제 보강 등 기반시설 확충

전남도는 올해 여수 호령항과 고흥 염포항 등 31개 어항(항구)에 135억원을 투입해 어선의 안전 수송시설 및 어항 내 퇴적물 제거 등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주진 분야별로는 지방어항 건설사업 11개소 125억원, 어항 내 퇴적물방 시설 20개소 5억원, 어항 내 주차시설

정비 2억원, 호안 정비 6개소 3억원 등이다.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어항 기초시설인 방파제를 보강하면서 태풍 발생 시 높은 파고에 견딜 수 있도록 파고를 저감할 수 있는 소파공법을 적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설을 하게 된다.

또 어항 내 수질을 개선하고 퇴적

을 방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방파제는 철거하고 해수 소통구를 설치한다. 어항 내 퇴적물방 시설사업은 퇴적물이 쌓여 어선 입·출항에 장애를 받는 소규모 어항을 대상으로 바닷물의 흐름을 도와주는 퇴적 예방시설을 설치해 어항 내 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해변과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어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에 대한 차막이시설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전남도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8월 전남지역을 강타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가 발생한 완도 화흥

포항 방파제를 비롯한 389개 어항시설에 대해 824억원을 들여 재해로 인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년 우수가 전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항구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정병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내 어항은 수산업의 근거지이자 어선의 귀환지인 점을 감안해 기반시설이 미비한 어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친환경적이고 수요자 위주의 어업과 관광기능을 갖춘 차별화된 지방어항을 지속적으로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뱀 숨어있는 ‘금골마을’ 뱀 모양 아홉개 산맥 ‘사구실’...

‘뱀’ 관련 지명 전남 41곳 전국 최다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비사도(飛蛇島)’는 오랜 옛날 비사(나는 뱀)가 날아와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 환경군 해보면 금계리 ‘구수재’는 아홉마리 구렁이가 재를 못 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전남에 뱀과 관련된 지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이 기사년(癸巳年) ‘뱀(巳)의 해’를 맞아 뱀 관련 지명을 분석한 결과 국내 150만여개의 지명

중 뱀과 관련된 지명은 208곳에 달하고 전남이 가장 많은 41곳이나 됐다. 시·군별로는 바다와 산이 많은 고흥이 6곳으로 가장 많고, 광양도 5곳이나 됐다. 해남, 장흥, 완도, 보성, 각각 3곳에 이르면 목포, 영광, 담양, 장성 등 4개 시군은 한 곳도 없다. 종류별로는 광양 다압면 신원리 사동마을 등 마을이 27곳으로 가장 많고, 고흥 동강면 뱀골고개와 함평 구수재, 광양 진월면 사치고개 등 고개도 5곳에 이른다.

섬 이름도 비사도 외에 완도 보길도 장사도(長蛇島) 등 모두 5곳에 달하고, 보성 배암산과 나주 두류산, 신안 배미곶과 화순 배암이골도 뱀에서 유래했다.

광양 고평동 금골마을은 지명이 금뱀이 얹드려 숨어 있는 금사복지혈(金巳伏池穴)이라 해 금골이라 부르고 있다. 풍수지리학자들은 이곳을 명당으로 일컫는다.

순천 서면 지보리 구룡마을은 마을 뒷산의 산맥이 뱀과 같고 아홉개의



산맥이 있다 해 사구실이라 하다가 후에 구룡이라 바뀌 부르고 있다.

이들 지명은 형태나 지형이 뱀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경우가 대다수지만, 전설에 얽힌 곳도 5~6곳으로 적지 않다.

개구리처럼 생긴 고흥 와도(蛙島)와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기 위해 건너가는 모습의 형태를 가진 고흥 사도(蛇渡) 등이 형태를 대표한다면, 비사도와 구수재는 전설에서 비롯됐다. 설화에 얽힌 곳은 이밖에도 많다. 고흥 동강면 한천리 뱀골고개에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고개를 넘을 때 큰 뱀을 만난다’는 전설이 담겨 있고, 보성 월평마을에는 ‘1759년 마을에 큰 구렁이가 있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

새 얼굴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역점”

배택휴 해남 부군수

“군민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하는 해남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일 부임한 배택휴(43) 해남 부군수는 “미래가 있는 해남, 풍요롭고 훈훈한 정이 넘치는 해남을 만들어 가기 위해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과 일자리 창출, 인구 늘리기, 관광과 유치, 신바람나는 공직 풍토 조성 등에 역점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기업유치와

도시민 유치, 관광객 유치 등 적극적인 해남 마케팅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순천 출신인 배 부군수는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 행정안전부와 통일부를 거쳐 전남도 경제통상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지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여수수협, 새해 초매식 갖고 풍어 기원

여수지역 어업인들이 2일 새벽 여수수협에서 무사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새해 초매식을 갖고 있다. 지난해 여수지역 수산물 위판고는 1300억원(위판량 3만2000여t)을 기록했다. <여수시 제공>

새해 새 설계

조충훈 순천시장

“정원박람회 올인 새 미래 열 것”

“순천의 미래를 위해 정원박람회를 반드시 성공 시킬 것입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2일 전체 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정원박람회 현장을 찾아 기사년 새해 공식업무 시작했다.

조 시장은 정원박람회 랜드마크가 될 ‘꿈의 다리’와 ‘바람의 언덕’과 호수, ‘어린이 캐릭터 놀이정원’ 등을 꼼꼼히 살펴며 박람회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조 시장은 “지난해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정원박람회 준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면, 새해는 그 토대위에서 세계가 감탄하는 정원박람회를 개최해 순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 시장은 “지난해 여름,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열린 여수 세계박람회가 해양강국의 면모를 내세우며 세계를 감동시켰듯이 새해는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순천이 대한민국 생태강국의 꿈을 실현하는 기적을 이뤄 내겠다”면서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여수 주변도시와 진정성있는 대화와 응원을 통해 동반성장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 광양시장이 정원박람회 공동 자원위원장으로 참여함으로써 상생협력이 더 탄력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순천시는 2013년 새해를 ‘정원박람회의 해’로 정하고, 7대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마음을 열어 시민 섬기기를 하고, ‘소통의 날’과 일일시장제 확대, 각종 사업 및 시책 결정과정

에 대한 주민참여 등 소통과 대화



해룡선월지구 투자유치

미래농업실험 874억 투입

국제화 교육특구 확대

로 시정을 이끌 방침이다.

또 ‘함께 즐기며 행복을 나누는 복지’ 구현으로 아동, 장애인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탈빈곤을 위한 자활 일자리 만들기 등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후안정 시책,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도 새해 주요 사업이다.

투자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해룡선월지구 투자유치 활동 ▲중소기업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산학관 협력지원을 통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도 중점 시행하기로 했다. FTA(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한 미래농업 실현을 위해 10개 분야 159개 사업에 87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평생학습을 위한 배움터 지원으로 각종 학교 시설개선과 프로그램 지원 등 공교육 지원 강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영어체험 학습 지원 등 국제화 교육특구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조 시장은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를 통해 순천시가 세계의 도시들이 부러워하는 생태도시가 되고, 대한민국 대표 톨모델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지난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치권의 수뇌부 인사들이 정원박람회장을 둘러보고 모두 놀라움과 감동을 표실했고,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의 국비 지원비 74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원박람회는 국비 199억원, 도비 90억원 등 총 289억원을 지원받게 돼 시비 부담을 줄이면서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신대 배후단지 조성, 오천택지와 원도심 도시개발, 중앙 지하상가 개선, 연향전 물길 복원, 동천 ‘고향의 강’ 사업 등 자연친화적 정주도시 조성으로 새해에는 순천의 미래가 새롭게 열리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새해에 시민과 소통하고 지혜를 빌리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는 ‘지구의 정원 순천만’(Garden of the Earth)을 주제로 오는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간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새해 첫날 여수도시공사 청소대행업무 순조

여수도시공사의 청소대행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인 여수시 김태규 기획경제국장과 김양자 환경복지국장 등 시관계공무원들은 첫 시행된 도시공사의 청소대행업무 진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새벽 5시부터 현장을 돌며 차량과 환경미화원 배치 상태, 청소상태 등을 점검했다.

280여명의 환경 미화원들은 준공무원이라는 신분과 후생복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청소업무에 더욱 적극성을 띠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장기간 수익계약 등 청소대행 민간위탁사업의 문제점 해소와 청소업무의 효율화 등을 위해 여수지역 청소대행 업체들과 청소대행 계약을 끝내고 새해 1일부터 여수시 도시공사에 청소대행 업무를 이관키

로 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의 반발과 소송 제기, 청소차량 확보문제 등 어려움이 따랐으며, 일부에서는 청소대란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순조로운 청소업무를 위해 도시공사에서 자체 확보한 차량 10대와 진남위생공사 차량 3대, 청소차량 임차 32대 등 만반의 대비를 해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철저·한·독일 인의·장 인 정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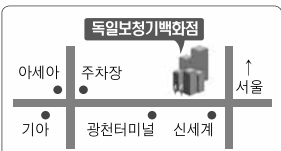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되었습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영)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한국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 경매 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률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률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대지, 전, 답, 입야 매매 신속처리

가족묘지, 남골묘, 신산, 농장, 전원주택지
공장용지, 임대용 아파트, 원룸, 상가 다량물건보유

20년 원조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하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서구정양)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검색

通... 하십시오!



더 신뢰있고 더 좋은 정보를 방문하신 고객님의게 제공합니다.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목욕탕 매매

1만5천여 세대 독점
성업중인 최신회관
목욕탕, 높은 수익률

대 지
2,480㎡(750평)
건 물
4,460㎡(1350평)
용 자
20억~25원 까지
매매가
40억원
(감정가 58억원)
실 준비금
15억~20억원 까지

행운공인중개사 011-642-7777

가 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금매

“담양” 무인텔
대 지 : 5,048㎡
연건평 : 2,474㎡
객 실 : 32개
현 성업중
상무지구에서 15분
매매가
상담후 결정

염전 금매

해남 염전
138,600㎡
신안 지도
50,000㎡
매매가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랜드피어 사가리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원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실분과 연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히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헬 011-602-2532

(광주광역시 신촌동, 대인동 소방서건내편)